

평화드림포럼 국제 학술 심포지엄 소감문

조운재

2020년을 지나며 세계의 일부 국가들은 마치 한마음으로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
대 이후 유지되어 온 평화의 기조와 인류의 화합을 상실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보인
다. 그런즉 금년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묻다”라는 표어 가운데 진행된 평화드림
포럼의 국제 학술 심포지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
인 전쟁으로 이어지는 21세기에 발발한 주요한 전쟁의 진행 상황 가운데 한반도가 나
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도록 만드는 유용한 심포지엄이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글을 잇기에 앞서 최근 들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무
력 전쟁은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그것은 무력을 통한 전쟁의 발발이
자신의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수단
으로 사용되었다는 부분이다. 그런즉 앞선 두 전쟁들은 전쟁의 시작이 어찌 되었든
그 과정과 결과는 강한 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우선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전쟁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의 선택이 곧 선으로 정의되는 문제점을 반복하고 고수한다. 그리고 이를 통
하여 파생되는 약육강식의 논리 안에서 발생한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
들이 짊어지게 된다. 즉 소수의 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선량한 젊은이를 시작으로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인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진행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들의 핏값으로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역사적으로 더 복잡하게 여겨지는 팔레
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은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종교와 민족의 대립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과 함께 동시에 이번 전쟁이 표면적으로는 하마스나 이스라엘
의 전쟁으로 정의될지라도 대부분의 희생자가 전쟁과 관련이 없는 일부 이스라엘인들
과 팔레스타인의 힘없고 선량한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이 기억되기를 소망한다. 즉 얽
히고설킨 실타래가 불가피하게 전쟁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현실에서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Zoughbi Alzoughbi 강사의 주장처럼 평화란 있는 그대로의 평화가 아닌
정의가 기반이 된 평화일 때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는 전쟁
상황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평상시의 삶의 모습에서도 적용되
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명목상의 평화 아래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 및 점령에 동의하여 온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러한 암묵적인
동의를 대부분 강대국들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앞선 결정은 정
의가 기반이 되는 평화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로 이로 발생하는 문제는 억압

하는 가해자가 제3자의 저항 없이 지속적인 억압을 행할 수 있다는 부분과 함께 희생자는 주변의 도움이 존재하지 않기에 끝없이 억눌리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이에 대한 해법이라면 진정한 평화는 약소국이 아닌 강대국의 양보와 포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잘 되도록 가진 것들까지 내어주는 결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앞선 평화를 강대국이 약소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원조에 대입해 보면 강대국이 약소국에 자본을 지원하는 본질적 이유는 그들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채무를 문제 삼아서 해당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좌우하기 위함이 아니며 이와는 별개로 약소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런즉 진정한 평화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닌 바로잡을 때 일어나는 것이며 스스로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닌 차별을 제거하려 노력할 때 성취됨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남에도 인생의 시작점부터 누군가는 1등 시민의 지위를 얻지만 누군가는 2등 시민으로 분류되는 불공평한 구분은 철폐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한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가 좌우하는 시도를 없애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아쉽게도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힘의 논리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으나 강대국이 먼저 자신의 것을 나누며 공생하는 결단을 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강대국과 약소국은 공존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글의 결론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한반도가 평화의 길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세 가지 부분으로 고려해 보고 싶다. 첫 번째로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강대국의 약소국 지배는 바로 자신만이 올바른 선이기에 상대방의 주권을 수정하고 바꾸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남한과 북한은 첫 번째 모습 가운데 협력하고 교류하며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한 마디로 서로가 서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더 나아가 동행하고 대화해야 함을 뜻한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멈춘다면 실천의 영역이 부족한 것으로 서로를 인정했다면 동행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교류할 때 역사는 발생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남한과 북한 모두 자신이 가진 신념이 올바른 신념인지를 분별하려 노력하고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바라볼 필요가 존재한다. 즉 자신의 신념이 아무리 완벽하다고 생각되더라도 한 발자국 떨어져 제3자의 시각으로 자신과 상대방을 투영하여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세 가지의 상황이 올바르게 진행된다면 남한과 북한은 이상적인 평화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며 올바른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이 Zoughbi Alzoughbi의 주장처럼 정의가 기반이 된 진정한 평화를 실천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지 말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가진 것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럴 수 있다면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국제정세의 분위기 속에서 남한과 북한은 가장 먼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